

아시아 최대 의료 박람회

‘Medical Korea & K-Hospital Fair 2016’



아시아 최대의 국제 보건의료 행사인 ‘Medical Korea & K-Hospital Fair 2016’이 ‘글로벌 헬스케어의 미래’를 주제로 한국에서 열렸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이영찬, 이하 진흥원)·대한병원협회(회장 홍정용)은 ‘Medical Korea & K-Hospital Fair 2016’를 지난 10월 20일부터 22일까지 서울 COEX에서 개최했다.

해외 보건부 고위관계자, 의료기관, 디지털 의료기기 등 관계자 2만 여명이 참가해 ‘글로벌 헬스케어의 미래 : 혁신, 융합, 그리고 창조’를 핵심테마로 다채로운 행사가 열렸다.

정부 고위관계자 간 회담, 전시회, 컨퍼런스, 비즈니스 미팅, 글로벌 헬스케어 유공포상 시상식 등이 진행됐다.

전시판에서는 우리나라가 경쟁력을 가지는 보건

의료기술을 소개하며 체험행사 등을 통해 한국 의료의 우수성을 홍보했다.

총 180여개 업체에서 366개 부스가 설치되는 ‘병원의료산업전시관’에서는 영상의학 및 진찰·진단용 기기 등 보건산업분야의 최신 제품, 신약개발 등 각 테마별 홍보 부스가 운영됐다.

전시관은 그야말로 최근 의료계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첨단 ICT 기술, 감염예방, 원격의료 등을 엿볼 수 있는 자리였다.

첨단 ICT 기술과 결합한 의료기기

최근 의료계는 첨단 ICT 기술과 의료기기를 결합해 의료진의 어려움을 덜고 환자의 보건을 증진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RAPAE Smart Glove는 재활 학습 알고리즘



을 장치와 영상에 적용해 게임 형식으로 환자에게 맞춤형 훈련을 통한 재활 훈련을 제공하는 의료보조기기다.

환자가 로봇 팔 모양의 글로브에 손을 끼우고 연결된 모니터에서 게임을 선택하면 환자가 직접 손을 움직이면서 게임과 상호작용한다.

2M나 되는 대형화면에 시체 모형을 그대로 옮겨놓은 기기도 주목을 받았다.

‘아나토마지 테이블(Anatomage table)’은 가상해부대라고도 불리며 모니터에 실물크기의 가상 카데바를 손끝 터치로 조작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환자에게 카데바를 보여주면서 활용하는 진료용과 학생들의 인체 해부 교육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실제로 미국 메이요병원에서는 아나토마지를 사용해 진료시 환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최석현 아나토마지코리아 과장은 “현재 고대의 대나 연세의대에서 학생 실습용으로 테이블을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실물 카데바의 경우 수량의 제한 때문에 실제로 실습할 수 있는 학생 인원이 정해져있는 문제와 혈관과 신경을 관찰하기 힘든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감염 및 투약사고 예방

감염과 투약사고를 예방하는 최신 기기도 주목을 받았다.

메르스와 관련해선 열 감지 시스템과 격리실 등이 여러 업체에 의해 선보였고 C형 간염과 관련해선 재사용이 불가능하도록 주사바늘이 주사기 본체로 들어가는 일회용 주사기 등이 소개됐다. 전자동 약품 분배 캐비닛 시스템은 병원과 약국에서 일어나는 투약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개발됐다.

JVM의 ‘인티팜’은 환자별로 필요한 약품을 처방에 의해 자동으로 분배해 배출한다.

임영진 JVM 사업부 담당은 “캐비닛을 컨트롤할 수 있는 스테이션에서 환자가 처방받은 대로



약품이 나오기 때문에 병원내 미숙한 간호사 등에 의한 투약사고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시스템을 사용하기 위해선 사용자별 지정택인식을 통해 개별인증을 해야 하기 때문에 불특정다수가 무단으로 약품을 가져갈 수 있는 문제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

원격의료 시스템

보건당국이 추진에 박차를 가하는 원격의료에 맞춘 기기와 시스템 등도 전시의 주를 이뤘다.

한국원격영상의학원(KTRC)은 CT, MRI 등의 의료영상의 판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병원 등에 원격판독서비스를 제공한다. 일종의 의료인간 원격의료인 셈이다.

지난 2008년 대한병원협회, 대한의료영상진단협회, 인피니트헬스케어 등이 공동 설립해 서비스를 제공해 오고 있다.

권용욱 KTRC 국장은 “현재 종합병원, 의원, 해외병원 등 300여개에 이르는 의료기관에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환자-의료인간 원격 의료상담 시스템도 소개됐다.

YouNacare는 생체신호측정, 원격제어, 화상상담 등을 통해 청진 및 의료 영상 공유로 원격진료를 돕는다.

CADY는 U-Health 기기로 개인별 생체정보를 기기를 통해 자동 전송하면서 세밀한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한편 한국정부는 바레인, 카타르, 몽골, 베트남, 루마니아, 우즈베키스탄 등 해외 고위 보건의료 관계자들과는 양자회담을 통해 한국 건강보험정보시스템 진출을 논의했다.

중국, 베트남, 우즈베크 등 총 13개국에서 80여명의 해외 바이어는 외국인 환자 유치 등을 원하는 국내 병원 및 전시 참가자 등과 1:1 비즈니스 미팅을 가져 향후 한국 병원의 해외 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활성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김윤선 기자/MP저널

